

## 김수미 유작 '홍어의 역습' 12월에 본다

등록 2025.11.14 08:51:11



[서울=뉴시스] 손정빈 기자 = 배우 김수미 유작 '홍어의 역습'이 다음 달 관객을 만난다. 시네마뉴원은 이 작품을 12월10일 선보인다고 14일 밝혔다.

'홍어의 역습'은 외계 홍어가 지구를 침공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코미디물이다. 김수미는 '홍할매' 역을 맡았다. 홍할매는 홍어 맛집 사장이다. 이 작품엔 김수미와 함께 이선정·오승희 등이 출연하며, 이수성 감독이 연출했다.

김수미는 지난해 10월 세상을 떠났다.

©공감언론 뉴시스 [jb@newsis.com](mailto:jb@newsis.com)

Copyright © NEWSIS.COM,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